창사 64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PARAVIEW Since 1995
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 · 삼일파라뷰

제8339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음력 11월 23일)

전남 전국체전 D-300일…성공 개최 힘 모은다

목포서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 기념행사…사전 '붐업'

金지사 "국민 감동 체전 목표 환대 분위기 조성 집중"

화합·감동·희망체전으로… 15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D-3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내빈들이 대회 카운트다운 시계탑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15일 목포역 광장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사전 붐업 조성과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D-3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의원, 도민 등 1천9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자현악 여성 3인조 일렉큐브의 경쾌한 연주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원을 주제로 한 목포시립합창단의 힘찬 공연이 펼쳐진 후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 대표 선수가 함께 양 대회기를 들고 입장하면서 행사가 무르익었다.

이어 김영록 지사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 축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초·중·대학을 전남에서 나온 전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의 체전 성공기원 영상메시지, 전국체전 홍보 동영상 상영, 대회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 감동 체전을 목표로 환대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 전남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올림픽에 버금가는 멋진 체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공식 마스코트인 '생명이'와 '으뜸이'를 형상화한 카운트다운 시계탑이 김영록 지사와 내빈의 터치버튼 작동에 의해 가림막이 이탈하면서 처음 공개돼 내년 개최지가 전남임을 널리 각인시키고 성공 개최를 열망하는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카운트다운 시계탑은 목포역 광장에 대회 종료 시까지 비치돼 전국에서 목포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과 도민에게 내년 전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식후 문화행사엔 목포 출신 국악인 박애리와 배우자인 공연예술가 팝핀현준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과 안무로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염원을 뜨겁게 달궜다.

또 체전 마스코트 포토존과 현장 누리소통망(SNS) 인증샷 이벤트가 구성돼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했다.

기념행사 전 과정은 전남 유튜브채널인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남도는 2023년 초부터 자원봉사단과 도민 서포터즈 모집, 성화 채화·봉송 구상 등 대회 운영 준비, 숙박·교통·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손님맞이 준비, 체전과 함께 즐길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콘텐츠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폐회식이 열릴 목포종합경기장 건축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만6천468석 규모의 목포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6천468㎡ 규모로 내년 7월까지 건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종합경기장 공사에는 총 935억원(국비 200억원, 도비 230억원, 시비 5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2일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박명성 예술감독을 위촉한 바 있다. 해남 출신인 박명성 총감독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개막식 총감독 등을 통해 쌓은 탁월한 행사 기획력과 연출 노하우로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의 시작과 끝을 성공적으로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열린다.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을 분산 개최한다.

이어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김재정 기자

동복댐 저수율 27.96%
물 공급 가능 일수 : 151일

광주시체육회장 전갑수·전남도체육회장 송진호 당선

내년 2월16일부터 4년 임기 시작

민선 3기 광주시체육회장·민선 2기 전남도체육회장에 전갑수(전 광주시배구협회장), 송진호(전 목포시체육회장)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자는 1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실시된 민선 3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365명중 231표를 획득, 133표를 얻은 기호 1번 박찬모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 당선자는 "오늘 저의 당선은 체육인과 시민이 전갑수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선거 공약에서 강조한 것처럼 소통과 화합으로 광주시체육회를 전국 최고의 체육회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화합의 다리, 소통의 다리, 통합의 다리가 돼 하나되는 광주체육을 꼭 만들겠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광주체육을 반드시 재도약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 과정에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체육인들과 시민들만 보고 당당히 걸어가 체육인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광주시체육회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전갑수

송진호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당선자는 15일 전남도체육회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선 2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339명 중 116표를 획득, 112표를 얻은 장세일 후보와 111표를 얻은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송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거짓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고 자존심을 지킨 전남체육인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두 후보님을 지지해 주신 체육인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행복하고 건강한 전남체육, 소통으로 하나 되는 전남체육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도체육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일(2월16일)로부터 2027년 정기대의원 총회 전일까지 4년이다. /박희중 기자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곳곳 눈…주말·휴일 강추위 지속

15일 밤부터 광주·전남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주말·휴일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도 19일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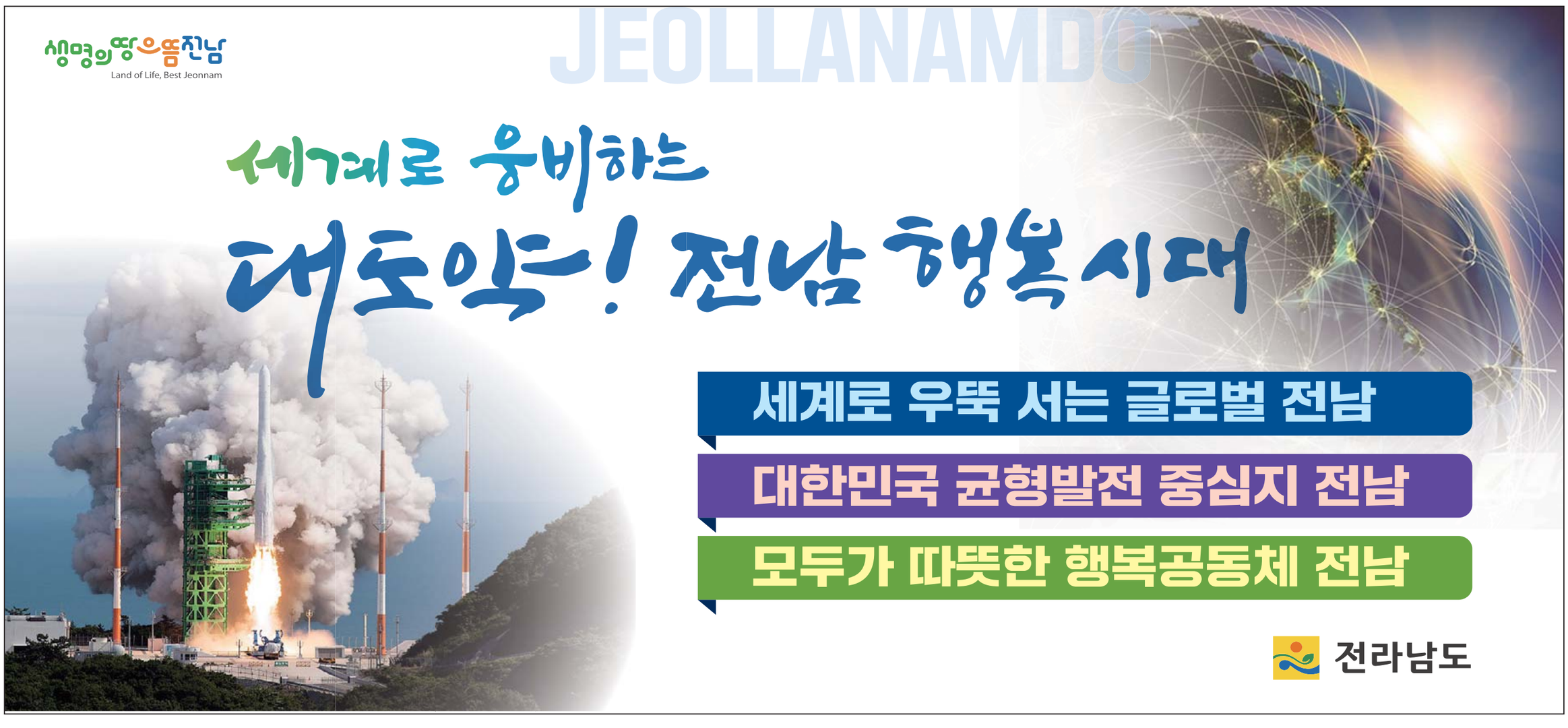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으며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의 예상 적설량은 1-3㎝다.

16일 그친 눈은 17일 다시 시작돼 19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추위도 이날까진 기승을 부리다 20일부턴 풀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최저기온은 장성·담양·곡성 영하 5도, 나주·화순·영광·구례·보성 영하 4도, 함평·영암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로 예보됐다.

17일부터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은 소폭 하락하겠다. 이날 곡성은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은 영하 5도-영상 2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관계자는 "내린 눈·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도 눈이 쌓이거나 얼어 빙판길이 예상돼 보행자·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Today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5면
'5·18민주화운동' 명칭 변경 제안 7면
시·군 체육회장 선거전 본격화 16면